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31
----------	-----

제안년월일 : 2022년 9월 22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주 문

- 코로나19 거리해제에 따른 택시 승차난 해소하고 택시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요금인상안 외에 유가보조금 인상, 택시리스제 운영, 플랫폼택시 목적지 미표시 및 사업개선명령권 위임 등에 대한 정부 협조를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해제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수요가 늘어난 반면 택시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승차난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음
- 서울시는 줄어든 법인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요금인상만으로는 현재의 택시 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요금 인상 외에 택시 운수종사자를 늘리고 시민이용 편의 증진을 정책이 필요하나 일부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서울시가 추진하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다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와 이용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유가보조금 인상, 택시리스제 운영, 플랫폼택시 목적지 미표시 및 사업개선명령권 위임 등을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4. 이 송 처

- 국 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정 부 :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

2019년부터 진행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이 늘어나면서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수요가 늘어난 반면 택시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승차난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간의 택시공급 확대 등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가 미미하여 서울시는 지난 8월 29일 기존 야간 할증시간 및 요율을 확대하는 심야탄력요금제와 택시 기본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시 택시공급이 부족한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로 다수의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배달앱, 택배 등 유사 업종으로 이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요금 인상만으로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요금 인상 외에 택시 운수종사자를 늘리고 시민이용 편의 증진 정책이 필요하나 일부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서울시가 추진하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법인택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늘릴수 있는 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유가보조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와는 별개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드시 인상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한다.

하나, 줄어든 법인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택시운전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택시를 임차하여 영업 수입금을 종사자가 취하는 형태의 ‘택시 리스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건의한다.

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플랫폼택시의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목적지 미표시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 개선이행조치를 플랫폼 택시업체에 내릴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앱을 통한 택시호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호출이 힘든 어르신들의 택시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플랫폼택시를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전화로 호출(콜택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2.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